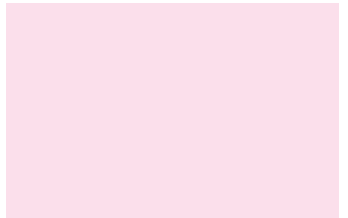




특집 1 _ 재외동포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양한 주문
 2 _ 동포사회 “차기정부,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해야”
 기획 _ 세계 한인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화제 _ 3·1절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식 개관



식목일에 심은 나무 같은 한글학교 선생님

내가 처음 국제선 비행기를 탄 건 1986년 여름이었다. 외화 낭비를 막기 위해 당시 유학생들이면 누구나 치러야 하는 어학 시험을 보고, 북한에 포섭되면 안 되니 소양 교육도 받은 후 파리로 가는 길이었다. 지금이면 열 시간 남짓이면 갈 길인데, 김포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일본 도쿄공항에서 몇 시간 머물고, 미국 앵커리지공항에서 또 몇 시간 섰다가 하면서 거의 서른 시간 만에 파리공항에 도착했다. 그때도 일반석은 좁았고, 사람들 틈에 끼어 앉은 내 앞 줄에는 프랑스로 입양돼 가는 아이들 5명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무료 항공권을 받은 젊은 유학생 부부가 앉아 있었다. 원래는 6명을 데려가야 항공권 2장이 나오는데 그날은 한 아기가 아파서 다섯 명만 데려가는 거라고 이 부부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래도 내 눈엔 신혼부부 둘이서 그 긴 시간 동안 아이 다섯을 건사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를 받아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아기의 기저귀를 바꿔주며 손을 보태고 있었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은 서너 살 먹은 여자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 각자 기내식을 하나씩 받아들었을 때, 그 유학생 부부가 동시에 내게 말했다. “개는 다 먹이면 안 돼요. 애네들은 보육원에서 자라서 한꺼번에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나는 당황했다. ‘아이가 알아들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난 분명히 보았다. 그 아이의 눈에서 똑똑 떨어지던 눈물방울을...

유학 생활을 하며 나는 파리 한글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당시 파리 한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자녀들이었고, 나머지는 입양아였다. 입양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 실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그때 나는 처음 알았다. 당시에는 적당한 교재가 없어서 한국에서 쓰는 초등학교 국어책을 구해서 사용했는데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나라.’로 시작되는 첫 페이지를 펴며 ‘이 아이들이 강아지 이름이 왜 바둑이인지 알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한국에 돌아온 후 나는 운명처럼 한국어교육과 역인 삶을 살았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다. 마침 거세게 불기 시작한 한류 바람을 타고 인도와 폴란드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집필했고, 미국 UCLA의 방문학자로 1년간 머물 때는 LA 한국문화원의 부탁으로 세종학당의 모태가 된 한국어교육의 운영을 점검했으며, 남가주 한글학교협회의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다. 한류 콘텐츠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YTN 월드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했으며,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수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시 한글학교와 인연이 시작된 건 서울대학교로 재외동포재단의 교육지원부장이 나를 찾아오면서부터였다.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맞춤형 단기 양성과정의 운영을 부탁받아 그 일을 했으며, 스테디코리안의 교육자료를 정리하고 한글학교 인증과정을 제안하고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이제 국립국어원장이 되어 난 그동안 무척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됐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국립국어원에서 ‘K 티처’라는 자격으로 인증해 주는 일이다.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치러야만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교원 자격증을 대신해서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일정 시간을 공부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치면 국가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주된 업무다. 국내 영어 선생님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한국인이듯 이제 외국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시대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현지 사정에 맞는 한국어교육이 가능하고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재외동포재단과 국립국어원은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구촌 어느 나라의 한글학교 선생님이든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인증하는 한국어 교사로 당당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식목일에 심은 나무가 미래의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국립국어원과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협약이 세계를 한국어로 푸르게 물들이는 울창한 숲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창**



- 02 권두언 식목일에 심은 나무 같은 한글학교 선생님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04 특집_1 재외동포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양한 주문
- 06 특집_2 동포사회 "차기정부,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해야"
- 08 기획 세계 한인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 10 화제 3·1절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식 개관
- 12 한민족 공감 '한인 4명 희생' 미 애들랜타 총격 1주기 추모식
- 14 글로벌 코리아 조봉환 필리핀 세부 한인회장, '3·1 평화 메달' 수상
재미 동포 최규선 씨, '캘리포니아주 최고 마케팅상' 수상
박루슬란 감독한 한-카자흐 합작 영화, 카자흐서 최초 상영
- 16 문화유산 경주 양동마을, 500년 세월이 오롯이 남아 있는 반촌
- 18 유공 동포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아들 안필영 응 별세
- 19 지구촌 통신원 인도네시아 시골 한국 마을 '카두 응양' 공원
- 20 동포소식 캄보디아 한인들, '함께라면'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외
- 22 동포 캘린더 미 미네소타대 한인 학생들, 독도 수호 활동 재개 외
- 23 기고문 재일동포는 재외동포청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김웅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교수
- 24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울산시·매경, 한상대회 성공 개최 협력 약속 외
- 26 유관단체 소식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50주년 맞아 동포 위문공연 외
- 27 재단공지 2022년도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 2분기 운영 안내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양한 주문 “동포 권익 증진하고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실행해달라”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은 국민통합, 나라 발전, 국가안보 및 균형 외교 강화, 재외동포 권익 향상,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 등 다양한 주문과 당부를 당선인에게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시대를 앞두고 재외동포들의 여러 당부와 의견을 주요 지역별도 들어봤다.

미주지역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지나친 이념·지역·세대 간 대립과 반목 속에 ‘대한민국호’가 극단적 분열 속에 좌초할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일 것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찰스 윤 미 뉴욕한인회장 재외동포의 권익에 좀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만큼 재외동포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 약속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는 지구촌에서 새 대통령

이 초당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그 다음으로 가치 중심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정책적 측면에서 한미 관계를 잘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만큼 군사 측면에 기울었던 전통적인 한미동맹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공공외교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 전문가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박기락 베이징한국인회 회장 한중 관계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다. 새 정부는 중국과 미국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중국, 북한, 미국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실리 외교를 펴나가길 부탁한다.

황상욱 선양 한인회장 새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 사드 논란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과 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지원 차원에서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에 성마다 1개의 영사출장소를 설치해 운영하길 건의한다. 현재 동북 3성의 한국 공관은 선양총영사관과 다롄 출장소 2곳이며 모두 랴오닝성에 있다.

조성건 홍콩 한인회장 상대 진영을 포용해 나라를 통합하고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국가의 높은 위상이 곧 재외동포로서의 자긍심이므로 당선인에게서 국가 위상 제고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일본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_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희망한다. 한일 관계 악화는 단순히 양국 관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안전보장과는 관련이 있으며 재일동포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그동안 쌓인 상호 불신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김대하(농심재팬 대표) 회장_ 일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한국의 기업인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다면 한일 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은 한층 활발해질 것이며, 민간 문화교류도 확대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구척 재일본한국인연합회 중앙회 회장_ 한일 간에 역사적으로 풀 것은 많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대했던 해법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사는 교민들의 고통도 생각하며 이번 정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때와 같이 서로 양보하고 통 큰 조약을 맺어 한일 사회가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럽지역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 겸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장_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획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여야가 협치할 수 있도록 국민 대통합 정치의 초석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독일 연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도순 민주평통 영국협의회장_ 당선인이 통합을 추구하고 공정과 상식 공약을 꼭 실천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의 편을 가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이 발전한 나라가 됐고 한류가 인기를 얻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대선 기간에 좋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타깝다.

송안식 프랑스 한인회장_ 보안 문제가 중요하긴 하나, 재외동포가 고국의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우편 투표와 같은 제도를 잘 고려해 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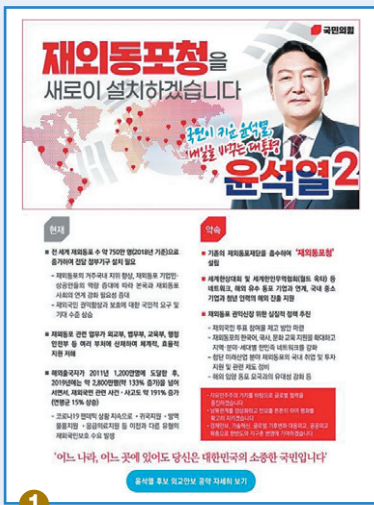
중동·아프리카

김인순 이란 한인회장_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외화를 벌고 문화 외교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_ 올해가 남아공과 한국의 수교 30주년인데 앞으로도 남아공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창]**

1. 2월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아이와 함께 제20대 대선 재외투표를 하고 있다.
2.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2월 23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교민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3.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2월 23일 프랑스 파리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4.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사회 “차기정부,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국적’ 문제도 해결 과제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동포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동포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했기에 향후 이행 여부에 동포들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약을 꼭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는 “2067년 우리나라 인구가 3천900만 명으로 감소하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1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또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에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고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한인회총대회에 참가해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해왔다.

“재외동포청, 동포정책 전담기구 역할 해야”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현재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 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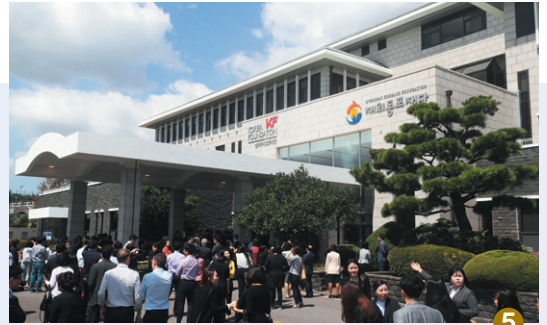
그동안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3



4



5

심 회장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임스 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만큼 동포사회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외선거 투표를 높이려면 ‘우편투표제’ 도입해야”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는 선거인의 신고·신청과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투표 방식에는 진전이 없었다.

현행 재외선거에서는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거주국 공관을 두 차례 방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선거 당일 이임 공휴일이지만, 해외에서는 평일이라 생업을 중단하고 장거리를 차나 비행기로 이동해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동포사회는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심 회장은 “재외선거 유권자는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2만여 명이 등록했고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만 명에 불과했다”며 “현행 ‘공관 투표’ 방식으로는 투표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지금까지의 선거가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의 한 개 주(州)나 중국의 한 개 성(省)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우편투표 시행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귀국하려는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5살 낮춰야 한다”며 윤 당선인에게 호소했다. 해외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해 장기 거주하다 역이민한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당시 허용 연령을 그렇게 정한 것은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이미 은퇴한 시기인 ‘65세 이상’으로는 재외동포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다며 허용 연령을 더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무원, 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을 방문할 때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복수국적 악용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며 “이른 시일 내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

1.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 힘이 발표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
2.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3.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1차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4.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참정권 확대 논의 교포정책 포럼
5.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재외동포재단 전경

세계 한인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모국 단체들도 터전 잃고 국경 넘은 고려인·난민 도와

세계 각국의 한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터전을 잃거나 국경을 넘은 난민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포신문과 동포 단체들에 따르면 각국 동포사회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인 내 고려인과 외국으로 탈출하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펼쳐 긴급 송금을 하거나 구호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각국 한인회·봉사단체·민주평통·차세대 단체서 성금

미국 로스앤젤레스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화랑청소년재단(총재 박윤숙)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은 고려인 10가구에 1차 지원금 500달러(약 61만원)씩을 전달했다. 학교 기숙사에 남아있는 고려인, 현지인 학생들에게도 감자 1천kg을 전달했다.

또 고려인학교(정수리 학교장)에는 피란 지원금 5천달러(약 610만원)를 송금해 남아있는 가족의 한국 입국을 도왔다. 두 기관은 곧 고려인 40가구에 500달러씩 2차 지원금을 송금하기로 했다.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대표 브라이언 전)는 3월 말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방문해 긴급 구호 후원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AAYC의 후원금 모금에는 뉴저지한인회,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풀 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시의원 등이 동참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교계는 '우크라이나 돕기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한기홍 목사)를 결성해 피해자를 돕는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4월 말까지 캠페인을 전개한 뒤 5월 초 관련 단체에 송금할 예정이다.

글로벌어린이재단(GCF) 미국 뉴저지지부(회장 원혜경)는 4월 9일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더블트리호텔에



1

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돕기 바자'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어린이 난민 구호 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각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협의회(회장 김연수)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침낭, 마스크, 의약품 등 총 7종 4천226점의 구호 물품을 긴급히 모아 토론토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성당에 최근 전달했다. 이 성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동부유럽협의회(회장 정종완)는 3월 4만 달러(약 4천88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폴란드 정부 구호기관에 1차로 송금했다. 최근 2차로 4만7천 달러(약 5천73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기초의약품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선교사에게 보냈다.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부의장 김점배)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4만5천 달러(약 5천4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동포총연합회를 비롯한 독일 내 한인 단체들도 최근 뒤셀도르프 주재 우크라이나 총영사관을 찾아가 모금한 긴급구호 성금 2천440유로(약 330



만원)를 기부했다.

성금을 받은 뒤징 크레스 대표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는 이때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모아준 성금에 대해 크게 감사하다”고 사의를 밝혔다.

체코한인회(회장 김명희)도 긴급히 성금을 모금해 1차로 3만 코루나(약 160만원)와 유산권 5천 통을 현지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한인회는 기금 마련 행사를 펼쳐 추가로 성금을 보낼 계획이다.

고려인 피란민 국내 단체 지원으로 입국… “고려인 동포 구호 시급”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이 250여명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 마을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고려인 돕기 운동을 전개했고, 최근에는 모금을 해 인접국으로 피신한 고려인 가족의 모국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

3월 14일 고려인마을 주민 남 루이자 씨의 손녀를 헝가리 거쳐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30일에는 16명의 입국을 도왔다.

4월 5~6일에는 고려인 여성, 노약자, 영유아 등 29명이 피란지인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고국 품에 안겼다.

3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신소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한국에 오길 희망하는 우리 동포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까지 도움을 계속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100명 정도가 더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는 3월 29일 성명을 내고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인접국으로 피란한 수많은 고려인 동포가 여권이나 신분 증명 서류를 챙기지 못해 입국 비자를 받기 힘든 상태”라며 “입국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온 탓에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형편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모국으로 귀환을 원하는 고려인 피란민을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현지에서 전쟁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들에게는 숙소와 음식, 의료 지원 등의 구호 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모국에 들어온 고려인 동포에게는 임시 숙소와 의료물품 지원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한국이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체류 지원과 인도적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의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가운데 폴란드에만 고려인 1천명이 있다”며 “고려인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

1.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후 헝가리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아나미 양이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할머니 남루이자 씨와 만나 기뻐하고 있다.
2.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성금 모금 캠페인 장면
3.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캐나다 토론토의 우크라이나 성당을 찾아 구호 물품을 기증하고 기념 촬영하는 장면
4. 재미차세대협의회는 최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을 방문해 1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5. 광주 고려인마을은 우크라이나에서 주변국으로 피란한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3·1절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식 개관 서대문형무소 뒤편... 임정 성립·활동 전 과정 전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 및 활동 등과 관련한 사료를 종합적으로 전시한 임시정부기념관이 지난 3월 1일 공식 개관했다.

국가보훈처는 제103주년 3·1절인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했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기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립 의지를 천명한 지 4년 반 만에 완공됐다.

임시정부기념관은 말 그대로 일제에 국권을 상실한 뒤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활동한 내용을 한곳에 모은 곳이다.

임정부부터 정부수립까지 활동 한 눈에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국 독립, 광복 역사 등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다. 국권 침탈과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국내에서 항일투쟁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항일투쟁이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진행됐다. 독립운동을 기념할 장소도 대부분 중국에 있다. 국내에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 임시정부 관련 전시물이 있지만 그나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역사학자,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국권 쟁취를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 역사와 그 노력 등을 오롯이 담은 기념관 조성을 갈망해왔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작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한국일(11월 23일)에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개관이 지연됐다.

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안산 자락의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연면적 9천703㎡ 규모의 지상 4층, 지하 3층 건물로 건립됐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가가 투옥돼 고문을 당했던 서대문형무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옥상정원에 서면 가까이는 적색 벽돌이 선명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고문하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멀리는 독립운동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독립문을 품은 독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왼쪽으로는 인왕산이, 정면 멀리엔 남산이 시야에 훤히 들어와 망국의 한은 물론 광복 이후 번창한 오늘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임시정부의 세세한 활동과 기록 등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운 날인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임정 수립까지 열린 12시간의 첫 임시의정원 회의의 열띤 토론과정을 압축된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대일선전성명서, 일본의 항복문서까지. 1919년 4월 11일부터 자주독립 쟁취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선언했던 임시정부의 항일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등 27년의 여정 등도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7천200여점 유물 전시, 동포들 삶도 소개

3개 상설전시실과 1개 특별전시실에서 1919년 3·1운동부터 현재까지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 1천여 점이 전시됐다. 임정기념관이 지금까지 수집해 소장한 유물 7천200여 점 중 일부와 독립기념관 등 다른 곳에서 대여한 자료들이 우선 선을 보였다.

상설전시실은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으로부터 임시정부의 법



2



3



4



5

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활동을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사람들', '임시정부에서 정부로' 등 3개의 주제로 꾸며졌다.

임시정부 수립의 모태인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부터 문화·교육·외교·군사·행정 등 임시정부의 분야별 주요 활동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유물과 사진·문서·영상 자료들이 전시됐다.

눈길을 끄는 소장품은 광복군의 설립과 구성, 중국과의 관계 등을 정리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보고서'와 독립군의 주요 무기 중 하나였던 '러시아인 맥신 1910 중기관총' 등으로, 이 두 유물은 이번에 일반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1층 특별전시실에서는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를 주제로 한 개관 특별전이 오는 6월 26일까지 마련된다. 임정 국무위원이었던 김봉준(1888~1950)이 실제로 사용한 가방과 의복,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호, 대한민국 정·부통령 및 초대 내각 포스터 등의 자료들이 있다.

3층 상설전시 2관에는 '임시정부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임정 가족과 동료들의 삶, 임정을 도운 해외동포와 외국인 등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 전시도 이어진다.

전시공간 외에 1층 옥외광장의 '역사의 파도' 상징 벽과 3층의 영상작품

'돌아오기 위해 떠난 4천km'를 설치한 공간도 눈에 띈다. 상징 벽 작품은 관람객이 휴대폰을 통해 증강현실로도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

기념관 관계자는 "대한제국 멸망 이후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주체적 시각에서 살피고, 임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정통성의 계승에 중점을 두고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신을 살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정기념관 지난 3월 2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

1. 임시정부기념관 전경
2.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전시물을 관람하는 시민들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 및 활동 등과 관련한 사료 등을 종합 전시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내부 관람하는 시민들
5.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상설 전시관에 전시된 프랑스 조계에 세워졌던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



‘한인 4명 희생’ 미 애틀랜타 총격 1주기 추모식 유족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표적… 증오범죄 중단해야”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애틀랜타 총격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현지에서 열렸다.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는 인권·시민단체가 연합해 ‘아시안 혐오를 중단하라’는 주제로 추모식을 개최했다.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계 고(故) 유영애 씨 아들 로버트 피터슨, 중국계 고(故) 시아오지 텐 씨의 전남편 등 희생자 유족이 참석했다.

피터슨은 “어머니는 미국 역사 그 자체”라며 “다른 인종 간 결혼이 흔하지 않았던 때에 흑인 미군 병사와 결혼해 저를 낳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제 모친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친구였다. 그러나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표적이 됐다”며 증오범죄 중단을 호소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은 “사악한 폭력으로 모든 공동체

가 충격을 받았다”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의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도 한인들이 결성한 아시안 혐오범죄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추모식이 열렸다. 에리카 모리츠구 백 약관 아태계 연락 담당관은 비대위 관계자를 만나 증오범죄 근절 의지를 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전달했다.

분향소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캐럴린 버도 연방하원의원과 미셸 오 조지아주 상원의원,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헌화하고 묵념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존 오소프, 라파엘 위녹 연방상원의원은 영상을 통해 애도의 뜻을 보냈다.

김백규 비상대책위원장은 “1년 전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한인 비상대책위에 중요범죄 근절 의지 담은 성명 전달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에 전달한 성명에서 1년 전 사건은 반(反) 아시아 폭력과 차별이 미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끔찍한 살인은 미 전역의 공동체에 충격을 주고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주의, 여성 혐오, 모든 형태의 증오, 또 이 극단주의를 가능케 하는 만연한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극에 직면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희생자와 가족, 애틀랜타 공동체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희생자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희생은 반아시아 감정, 성별에 기초한 폭력이라는 미국의 오랜 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극은 만연한 총기 폭력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라며 “우리 행정부는 1년간 어느 행정부보다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행정 조치를 했지만 더 해야 한다.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흘 전에는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추모식

앞서 총격 사건 1주기 나흘 전인 3월 12일에는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현지 주민과 한인들이 추모식을 열었다.

아시아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와 유족·한인 단체는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미국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이 블랙번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 공원은 2017년 미국에서 3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곳이다.

총격 희생자 유영애 씨의 아들 로버트 피터슨(39) 씨는 “아픔은 언젠가 잊힌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며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미소,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어머니와 함께 전구를 갈던 사소한 기억까지 그림다”며 “어머니는 인종, 직업, 돌아가신 방법만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피 응우옌 AAAJ 지부장은 총격 희생자 김순자 씨의 딸이 보낸



2

편지를 대독했다.

김씨의 딸은 편지에서 “제 어머니, 그리고 내 딸의 할머니가 한 순간에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렸다”며 “지금도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실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응우옌 지부장은 “애틀랜타에서 인종차별로 빚어진 아시안 여성의 슬픔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거대한 폭력에 희생된 위안부 소녀들의 아픔과 다르지 않다”며 “폭력에 희생된 여성을 기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묵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와 애틀랜타 한인회도 참석했다.

지난해 3월 16일 총격범 로버트 애런 룡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1곳에서 총기를 난사했고, 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이 중 4명이 한인이었다.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룡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현재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유가족과 커뮤니티에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낸다”며 “유가족의 슬픔을 감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제 치유를 향해 나아갈 때”라고 주장했다. [▶](#)

1. 애틀랜타 총격 1주년 맞아 한인 희생자 추모하는 유족
2. 모친 고(故) 유영애씨 추모하는 아들 로버트 피터슨 씨
3. 애틀랜타 총격 사건 1주기 추모식서 연설하는 유족
4.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린 총격 1주기 추모식서 헌화하는 캐럴린 버드 연방하원의원
5. 애틀랜타 총격 1주년 추모집회서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는 현지 주민



3



4



5



조봉환 필리핀 세부 한인회장, '3·1 평화 메달' 수상 부인 시토이 조 코르도바 시장과 양국 우의 증진한 공로

필리핀 세부 한인회 조봉환 회장 부부가 삼일절을 맞아 국회 등록법인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이사장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회장 김희선)로부터 '3·1 평화 메달'을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월 28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및 평화 메달 시상식에서 이 메달을 수상했다. 공동 수상자인 필리핀인 아내 마리 테리스 시토이 조 코르도바 시장은 사정상 방한하지 못했다.

조 회장 부부는 자유와 정의의 3·1운동 정신으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 우의 증진과 경제 협력을 위해 앞장서고, 나아가 현지 한인의 안전과 권리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평화 메달 수상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상근 KBS 이사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필리핀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을 알렸고, 이들에게 한국 방문 기회를 줘 교류·협력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부부는 양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한국 며느리'로 불리는 시토이 조 시장은 오는 5월 7일 열리는 시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그가 3년 임기 시장직을 두 차례 맡은 코르도바시는 세부 본섬과 막탄섬 사이에 있는 인구 8만여 명의 섬이다.

이들 부부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모델로 코르도바시를 필리핀 최초의 첨단 시트로 건설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 회장은 1995년 친지 방문차 세부에 갔다가 이주를 결심해 그곳에 정착했다. 18년 전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현재 부동산 개발·임대와 리조트, 요식업 등을 하고 있다.

재미 동포 최규선 씨, '캘리포니아주 최고 마케팅상' 수상 파인스 리조트 대표, 'SNS 활용 마케팅'으로 코로나19 극복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파인스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인 동포 최규선 대표가 캘리포니아주 관광청이 주는 '최고 마케팅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 2월 중순 주 관광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파피 어워즈'(Poppy Awards)에서 이 상을 받았다. 수상식에는 이 리조트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일하는 아들 마크 최 씨가 대신 참석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상임이사인 최 대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인터뷰에서 "미국 관광의 핵심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호텔과 리조트 등 218곳과 겨뤄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며 "개인적 명예를 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열리는 파피 어워즈는 관광 홍보와 마케팅 등 8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체와 지역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다.



최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SNS와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을 펼쳐 3만 건이 넘는 객실 예약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1970년대 후반 유학차 미국에 왔다가 정착한 그는 보따리 장사부터 기념품점까지 하면서 돈을 모았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오크 허스트에서 숙박업체인 '데이즈 인'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0년 파인스 리조트를 인수했다.

팬데믹과 산불, 폭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들 마크 최가 사업에 합류하면서 SNS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리조트 중 하나로 만들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프레스 노비'는 최근 최 대표를 아메리칸드림을 이룬 인물로 크게 조명했다.

파인스 리조트는 20개의 스위트룸이 있는 호텔 1개 동과 침실, 부엌, 거실 등이 모두 갖춰진 캐빈 84개 동으로 이뤄졌다.

박루슬란 감독한 한-카자흐 합작 영화, 카자흐서 최초 상영 고려인 동포로 옛 소련 연쇄살인 사건 모티브로 영화 '쓰리' 연출

고려인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함께 제작한 영화가 3월 말 카자흐스탄에서 개봉했다. 양국 합작 영화가 카자흐스탄에서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고려인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고려인비즈니스클럽(KBN)에 따르면 고려인 4세인 박루슬란(41) 감독이 연출한 영화 '쓰리: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3월 31일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상영되기 시작했다.

작품은 2020년 10월 열린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아시아의 재능 있는 신인 감독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취지로 제정된 '뉴 커런츠 상'을 받았다. 박 감독은 BIFF 최초의 고려인 출신 수상자라는 영광을 안았다.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면서 영화계에 발을 디딘 그는 2012년 데뷔작인 '하나안'으로 국내 영화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이제까지 고려인과 관련한 다큐멘터리와 영화 십여 편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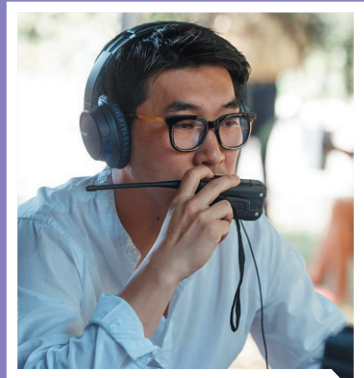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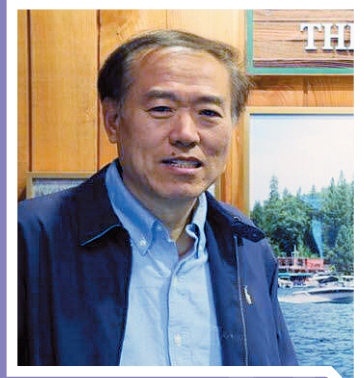
40여 년 전 옛 소련에서 발생한 한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쓰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스태프가 두 나라를 오가며 1년여간 촬영했다.

지난해 열린 제43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와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등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고려인 동포단체에 따르면 양국이 합작해 만든 상업 영화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CIS)에서 상영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영화관과 스크린 수는 각각 100여 개, 360여 개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루슬란 감독은 "이번 카자흐스탄 개봉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한국에서도 영화가 개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장**



경주 양동마을, 500년 세월이 오롯이 남아 있는 반촌



1



2



3

1. 1508년에 지어진 여강 이씨 종갓집 무첨당
2. 마을 초입에 자리한 관가정
3. 수운정(水雲亭)에서 안강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4. 비옥한 안강평야의 동쪽 구릉지에 위치한 경주 양동마을
5.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반촌으로, 모든 가옥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경주 양동마을은 월성(月城) 손씨와 여강(驪江) 이씨 양대 가문이 500여년간 대를 이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반촌(班村)이다. 지난 2010년 7월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경주시에서 동북방향으로 20km쯤 떨어져 있는 양동마을은 설창산(해발 163m)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서편에는 비옥한 안강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양동마을은 일찍이 이 들판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부촌으로, 물봉골·안골 등으로 불리는 골짜기마다 사대부들이 살던 크고 작은 고택과 초가들이 들어앉아 있다. 규모가 큰 기와집은 구릉에 자리를 잡고, 규모가 작은 집이나 초가는 골짜기에 모여 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지형의 위와 아래로 나누어 입지했고, 두 가문의 중가는 골짜기 맨 위쪽을, 분가는 봉우리에 자리잡았다.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주도하는 이른바 양성 씨족마을의 틀을 갖췄고, 지금까지 씨족마을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인 종택, 살림집, 정자, 서원과 서당 그리고 주변 농경지와 자연경관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다.

한국 10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주차장 옆의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양동’이라는 표지석을 지나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양동마을문화관이다. 이곳에서는 양동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본 정보 없이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기 십상이고, 마을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기 쉽지 않다.

마을의 가장 큰 골짜기 언덕배기에 손씨 종가인 서백당(書百堂)과 이씨 종가인 무첨당(無添堂)이 자리 잡았고, 마을 어귀에도 두 집안의 가장 큰 분가인 관가정과 향단이 힘을 겨루듯 자리 잡고 있다.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안골에는 손씨 가문의 입향조가 지은 서백당과 향나무가 고풍스러움을 자아낸다. 1459년에 지어진 월성 손씨 대종가의 사랑마당에는 당시 심은 향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일부 서까래만 바꾼 채 지금까지 후손이 사는 서백당은 영남의 4대 길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터는 현인 세 사람이 태어날 삼현지(三賢之地)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소의 아들인 우재 손중돈(孫仲墩, 1463~1529)과 외손인 회재 이언적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 그 때문에 손씨 집안에서는 시집 간 딸이 몸을 풀러 친정에 와도 받아주지 않는 관습이 생겼다고 한다. 큰 인물이 태어날 지기를 남의 성씨에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4

서백당에서 물봉골로 넘어가면 무첨당이 있다. 무첨당은 이언적의 부친이 살던 집으로 1460년경에 지은 여강 이씨의 종가다. 무첨당 사랑채에는 많은 편액이 걸려 있는데, '좌해금서(左海琴書)' 편액은 대원군이 죽필(竹筆)로 쓴 글씨로 유명하다. 서백당이 있는 능선 아래로는 사호당 고택, 상춘헌 고택, 근암 고택 등 이씨 가족들이 들어서 있다.

무첨당에서 관가정(觀稼亭)으로 가는 길에서 초가의 나지막한 돌담 옆에 핀 홍매화의 연분홍빛 자태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집과 정자를 겸한 독특한 양식의 관가정은 우재 손중돈이 손소로부터 분가한 집이다. 사랑채 누마루에 오르면 형산강과 들판의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데, 안강평야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까지 더해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게 한다.

관가정과 마주 볼 정도로 가깝게 위치한 향단(香壇)은 이언적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 종종 임금이 지어준 집으로 본래 99칸이었으나 한국전쟁 중 일부 소실돼 지금은 56칸으로 줄어들었다. 관가정은 대부분 사각기둥을 사용했는데 향단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했고, 외견상으로 무척 화려하고 과시적이다.

손씨와 이씨 두 집안은 후대에 내려올수록 가옥뿐만 아니라 정자도 경쟁하듯 건립했는데 모두 10개의 정자가 전해온다. 정자는



5

자연의 경관을 즐기는 휴양처와 가문의 인사들이 모일 수 있는 회의장소 기능을 갖는다.

능선을 지나면 고택이 있고, 길이 끊어질 듯한 곳에서 정자가 반긴다. 고택들의 현판과 기둥, 빗장, 문고리 등이 품은 세월의 오래된 이야기는 끝이 없다. 골목마다 숨어 있는 양동마을의 500년 이야기를 찾는 외지인에게 봄날의 하루해는 짧기만 하다. [▶](#)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아들 안필영 옹 별세

LA 한인사회에 독립운동 역사 증언하고 가르친 정신적 지도자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안필영(미국 이름 랄프 안) 옹이 3·1절을 앞두고 별세했다. 향년 96세.

안 옹은 지난 2월 26일 오후 11시 11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숙환으로 눈을 감았다.

고인은 안창호 선생의 셋째 아들로, 도산의 3남 2녀 가운데 최근까지 생존했던 유일한 핏줄이다. 안 옹은 1926년 LA에서 태어났다.

당시 도산은 미국에 체류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았고, 막내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활동 무대를 중국 상하이(上海)로 옮긴 상황이었다.

한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고인은 LA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을 졸업했으며, 1941년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 해군에 입대해 복무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는 독립유공자이자 한국계 미국인 배우로 활약했던 큰 형 안필립 선생의 영향을 받아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1950년대 영화 '배틀서커스', '미션 오버 코리아' 등에 출연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한국계 배우로서 연기를 펼쳤다.

배우 생활을 중단했던 시기에는 교육학 전공을 살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을 가르쳤다.

특히 고인은 부친과 가족의 뜻을 받들어 LA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증언한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다.

그의 큰 형 안필립 선생은 미국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비판하



1



2

는 연설을 했고, 1940년 10월 광복군 창설 축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한미친우회를 관리했다. 누나이자 도산의 장녀인 안수산(미국명 수전 안 커디) 여사도 신한민보와 흥사단, 3·1 여성 동지회 등에서 활동했고, 2차 대전 당시 미 해군에 입대한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이었다.

고인은 형과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도산의 직계 자손으로서 최근까지도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 부친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다.

또 차세대 한인을 대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노인 건강을 관리하는 강사로도 활동하는 등 각종 봉사 활동을 펼쳐 한인 사회의 큰 존경을 받았다.

윤효신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이사장은 "고인은 도산이 설립한 대한인국민회의 취지를 기려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고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우리의 기둥이었다"고 애도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3.1절을 앞두고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도산의 정신을 한인사회에 널리 퍼트린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딸이 있다. [\[참\]](#)

- 1.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안필영 옹
- 2.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에 입대하여 참전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필영, 안필립, 안수산 선생(국가보훈처 제공)

인도네시아 시골 한국 마을 '카두 응앙' 공원

30대 현지인 은행원, K-드라마 팬 아내 위해 조성



자바섬 서단 반튼주 판드글랑군 카랑산 종턱 한국 마을 '카두 응앙'

'카두 응앙' 한국 마을 현판식. 왼쪽부터 김용운 주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 원장, 공원 주인 우스 수티아씨, 판드글랑군 관광부장

올해 2월 2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가량 걸려 도착한 반튼주 판드글랑군의 시골 마을. 다시 이곳을 출발해 30여분 산길을 힘들게 올랐다. 해발 1천700m 높이가 카랑산의 1천500m 지점에 이르자 한국 마을을 표방한 공원 '카두 응앙'(Kadu Engang)이 한눈에 들어왔다.

2020년 12월 20일 개장 후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휴업을 반복했음에도 지금까지 4만여 명이 다녀갔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반튼주의 관광 명소로 소문난 곳이다.

카두 응앙 공원에는 인근 학교에서 소풍 온 여학생들이 한복으로 갈아입으며 재잘댔다. 여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한국에 여행 온 듯한 기분을 낼 수 있으니 최고"라며 즐거워했다.

이 공원은 놀랍게도 32세의 현지인 우

스 수티아씨가 K-팝과 K-드라마 열성 팬인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혼자 힘으로 조성했다. 우스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 종턱 땅 5천m2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차에 아내가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국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서 6년 차 은행원으로 지내던 우스씨는 2020년 9월 퇴사한 뒤, 같은 해 12월 공원 개장까지 '구글 검색'을 이용해 이 마을을 조성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 사진과 한글로 공원을 꾸미고, 한복 등 소품은 자카르타에서 대량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원 입장료는 한국 돈으로 성인 1천원, 어린이 500원. 공원 곳곳에는 한글 간판과 태극기가 부착돼 있었고 한복도 빌려줬다. 하지만, 한국인 조연 없이 구글 검색만으로 만들다 보니 간판과 안내판의 한글 맞춤법이 다수 틀린 데다 벚꽃과 후지산 그림 등

일본 이미지도 뒤섞여 있었다.

올해 1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이 공원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찾아낸 뒤 한 달 동안 진짜 한국 마을 만들기 작업을 지원했다. 한국 느낌이 제대로 나도록 솥대와 청사초롱, 달집을 지원했으며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한국 전래동화를 들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현지산 대신 제대로 된 한복도 지원했고 한글과 한국 사계절의 아름다움 등을 소개하는 코너 또한 개설했다.

여학생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본 공원 주인 우스씨는 "다들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며 뿌듯해했다. 한국문화원 김용운 원장은 "산속에 있는 카두 응앙 공원이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한국 분위기를 내도록 노력했다"며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업으로 연결한 '로맨틱 가이' 우스씨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장**

성혜미 연합뉴스 자카르타 특파원

캄보디아 한인들, '함께라면'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엠레아프 한인회, 어려움 겪는 한인에 12차례 생활용품 지원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한인회(회장 박우석)가 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젝트인 '함께라면' (If Together)이 주목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시엠레아프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원 앙코르와트가 있는 관광지다. 이곳에는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인 1천200여 명이 살았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절반이 넘게 귀국했다. 남은 한인도 근근이 생계를 잇는 실정이다.

시엠레아프 한인회는 모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외국인이라 현지에서도 도움을 못 받는 한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20년 7월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인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고 재외동포재단도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쌀, 라면, 고추장, 된장, 계란 등 생필품을 지원한다. 생계를 잇기 위해 아버지만 고국으로 일 자리를 찾아 나선 가정, 위기에 놓인 한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11차 '함께라면' 캠페인 장면(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한인회 제공)

주된 지원 대상이다.

한인회는 시엠레아프 주립 보육원을 방문해 신발, 담요, 이불, 학용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3월 16일에는 12번째 '함께라면' 캠페인을 시작했다.

남아프리카 에스와티니서 '밥퍼' 활동하는 한인회장·한인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속 매주 결식아동 300명에게 무료급식

남아프리카 소국 에스와티니에서 김한기 한인회장과 현지 한인교회 목사 부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빈민층 무료급식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김 회장은 3월 26일 현지를 방문한 기자에게 "매주 목요일 약 300명 어린이에게 닭고기덮밥 등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비영리 사단법인 라이트한츠와 미국 만나선교회가 이 급식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원래 국제보건 의료 관련 선교사인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의사들의 방문이 어렵게 되자 이전부터 해오던 결식아동에 대한 '밥퍼' 사업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의 에줄위니에 있는 신축 한인교회 앞에서 2월 28일 (왼쪽부터) 장영준 목사·김성혜 사모, 김한기 한인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지 한인교회 장영준(68) 목사와 김성혜(62) 사모도 지난 2년간 사비로 쌀과 옥수수가루, 설탕 등 식품 꾸러미를 약 5천 가정에 전달하는 사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에는 마사파에 있는 중범직 교도소를 방문해 흉악범 등 재소자 1천여 명에게 수건과 세숫비누 등 생활용품을 기증했다.

장 목사는 "한국에서 우이중앙교회에 시무하다 원로 목사가 됐다"라면서

"62세에 조기 은퇴하고 2015년 아프리카를 왔다가 할 일이 많은 것을 깨닫게 돼 에스와티니에 오게 됐다"고 소개했다.

아프리카 유일의 왕정국가인 에스와티니는 인구 110만여 명의 약 3분의 1이 절대빈곤층이다. 이곳에는 한인 90여 명이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중심거리 명칭에 '한국' 표기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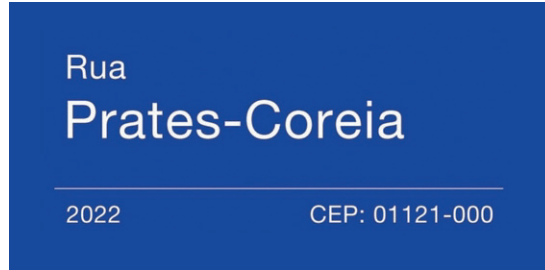
중남미 한류 중심지 상징성 부각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에 형성된 한인타운의 중심 거리 명칭에 '한국'이라는 표기가 들어 가게 됐다.

히카르두 누네스 상파울루 시장은 3월 23일 한인타운의 '프라치스 거리'(Rua Prates)를 '프라치스-한국 거리'(Rua Prates-Coreia)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

이에 앞서 상파울루 시의회는 3월 9일 산드라 타데우 시의원이 발의한, 프라치스 거리 명칭에 '한국'을 표기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인타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거리 명칭에 '한국'이란 표기를 추가하기 위해 시의회와 시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해 왔다.



상파울루 한인타운 중심거리 명칭에 '한국' 표기(상파울루 총영사관 제공)

총영사관 관계자는 "거리 명칭에 '한국' 표기 추가가 신속하게 이뤄진 데는 한인사회가 상파울루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이 반영됐고, 우리나라의 한층 높아진 국격과 이미지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상파울루시 당국, 한인 동포 단체들과 협의해 한인타운에

청사초등 가로등을 설치하고 보도를 개보수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등 중남미 한류의 중심지로서 봉헤치루 한인타운의 상징성을 살려 나갈 계획이다.

내년 2월 12일 이민 60주년을 맞는 브라질 한인 동포 사회는 최대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봉헤치루와 인근 브라스 지역에서 의류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 한인 2세,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 맡는다

미 상원,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존 H. 전 인준

미국 연방 상원이 한인 2세의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 지명을 인준했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인 2세인 존 H. 전(한국명 전형승)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사를 서부 연방지법 판사로 지명했고, 상원은 3월 23일 6개월여 만에 이를 인준했다.

이로써 전 판사는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의 첫 아시아계 남성 판사에 올랐다.

전 판사는 컬럼비아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코넬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 시절 한인으로는 드물게 2004년, 2007년, 2011년, 2013년에 전체 변호사 가운데 5%만 선발하는 '워싱턴주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다.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회장과 법원연구자문위원회 의장, 아시안변호사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4년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의 판사로 임명됐고, 4년간 근무하다 2018년 주



미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 판사에 인준된 존 H. 전(전형승) 씨

항소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 판사의 부친은 1960년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이민한 전홍국 씨로, 오리건 한인회장을 지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 전신용 씨는 서울은행장, 한국상업은행장, 한일은행장, 서울신탁은행장 등을 거쳐 금융통화운영위원을 역임했고, 김포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



미 미네소타대 한인 학생들, 독도 수호 활동 재개

미국 미네소타대 한인 학생이 주축이 된 독도 수호 동아리 'KID' (Korea's island Dokd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활동을 재개했다. KID는 지난 2월 펀드레이징 행사를 연 데 이어 3월 25일 같은 대학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골든벨'을 개최했다. 독도를 비롯해 한국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내고, 참가자는 이를 맞추는 행사로, KID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라고 이 동아리는 밝혔다. 참가자에게는 기술 문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독도 골든벨 가이드'를 제공했다. 현재 20명의 한인 학생이 참여하는 이 동아리는 그동안 북한 인권 동아리 'LiNK'와 함께 '독도 사진전'을 여는가 하면 교내 신문인 '미네소타 데일리'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103년 전 연해주서 올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기념행사 진행

국내 고려인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너머' (이사장 신은철)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센터장 김영숙)는 '3.17 연해주 만세운동' 103주년 하루 전인 3월 16일 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3.1 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17일 문창범(1870~1938), 이동휘(1873~1935), 최재형(1860~1920) 등 러시아 내 한인 지도자들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대한국민의회'를 창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너머'는 소셜미디어(SNS)에 당시 만세운동의 의미를 알리는 글과 카드뉴스 등을 게시했고,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병기된 기념 현수막을 달았다.



올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 350명 확정

올해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할 러시아 사할린 동포가 350명으로 확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영주귀국 사업과 관련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재외 공관, 사할린 동포 단체 등과 비대면으로 협의를 거쳐 인원을 확정했다"고 3월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법)을 적용받는다. 영주 귀국 희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재외 공관에 신청하면 7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8월 중에 개별 통보를 한다. 9월에는 귀국 설명회를 열고, 실제 영주귀국은 10월 중에 이뤄진다.

세계 한인 언론인들, 충남 금산 인삼 알리기 나섰다

세계 한인 언론인들이 충남 금산군의 인삼을 해외에 알리는 전도사로 나섰다.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사무총장 여익환)와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사장 문정우)은 3월 4일 금산 인삼의 해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인 고려인삼의 주산지인 금산 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협력하고,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그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언론 분야 국제 교류 촉진과 재외동포 위상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전 세계 65개 도시에서 한인 사회와 지구촌의 소식을 취재, 보도하는 180개 동포 언론사의 모임이다. 금산군은 지난해 세계 26개국에 인삼류 2천644만 달러(약 320억원)를 수출했다.



재미대한체육회장에 정주현 전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

재미대한체육회 제2대 회장에 정주현 전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당선)이 당선됐다.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은 3월 19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오는 6월 9일 취임하는 정 신임 회장은 "재미대한체육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특히 차세대 체육인의 육성과 발굴,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0년 역사의 재미대한체육회는 LA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워싱턴, 애크랜드 등 미 전국 30개 지역에 지회를 둔 비영리단체로, 재미동포 사회의 최대 규모 조직이다. 대구 출신인 정 신임 회장은 30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청바지 브랜드 'Just USA'로 성공한 한상이다.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내 66개 지부를 둔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 LA한인축제재단 회장 등을 지냈다.

재일동포는 재외동포청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은 진영을 막론하고 주요공약 중 하나였다. 여러 중앙부처로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외국인, 다문화가족에게 있는 기본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지, 재외동포청이 어떤 규모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왜 '처'나 '총리직속 위원회'가 아니라 '청'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할 논점들이 산적하다.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부처 간 의견충돌로 추진이 어려웠던 현안들을 횡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 기대된다. 후술하겠지만, 오늘날 재일동포가 국적을 막론하고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도 이에 해당한다. 재외동

포들 간의 서열화 즉 해방 전 모국을 떠난 비자발적 이주자 집단(재일동포, 중국동포, 고려인동포)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구조를 시정할 의지가 없는 채 단순히 현행 정책 추진 체계를 단순히 규합한다 하더라도 재외동포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기존 정책추진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가진 불이익을 겪고 있는 재일동포는 냉소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정부와 합의되었다. 이 점은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와의 차이점이다. 당연히 이들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재일동포에게 국민으로서 의무를 요구할 뿐, 권리에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제대한 재일동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월 13만 원이라는 국민건강보험료 청구서다. 보건복지부가 재외국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을 도외시한 채 일괄적으로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병역업무는 병무청과 국방부 소관이지만 이들이 군대를 떠나면 그만이다.

갈수록 늘고 있는 일본국적자는 어떻게? 오늘날 재일동포 중



김웅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교수

90%가 일본인과 혼인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 슬하에 태어나는 4, 5세대 자녀들은 일본국적으로만 등재된다.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오사카시내 한국계 초등학교생 중 2/3가 이미 일본 국적이다. 모국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진 대다수 재일동포 부모에게는 굳이 자녀의 한국 출생 등록 절차를 밟을 동기도 없다.

여타 재외동포와 마찬가지로 일본국적 재일동포 중에도 모국 정착을 원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외동포가 아니라 순수외국인으로서의 처우다. 한일협정에 따라 이들의 조부모 및 부모에게 부여된 한국국적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같은 비자발적 이주 동포

인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한국국적에서 이탈 후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행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이탈해야 한다. 본인이 한국국적자로 등재된 경력이 없는데다가 가족도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특유의 특성과 배치된다. 그나마도 2006년 이전에 출생한 일본국적 재일동포의 모계가 한국국적 이탈자일 경우에는 배제된다. 국적법이 부계주의였기 때문이다. 드라마 '파친코'에 열광하는 한국인의 정부가 그 배경인 재일동포 이주사를 이토록 외면하는 현실은 여간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처럼 재외동포마다 겪은 역사적 경위에 따라 각기의 지위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인지와 개선 의지다. 헌법소원에만 의지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소해온 재일동포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신설될 재외동포청에 들어서기를 바랄 뿐이다.



재외동포재단 · 울산시 · 매경, 한상대회 성공 개최 협력 약속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공동 주관기관인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매일경제신문(회장 장대환)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3월 24일 울산시청에서 오는 11월 1~3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의 공동 주관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식에는 김성곤 이사장, 송철호 시장,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부국장, 김점배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에서 개회사 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20년을 맞는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한상의 가치와 발전하는 한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가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참석하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2023년에는 처

음으로 해외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후보지는 미국 델러스와 오렌지카운티 중 한 곳이다.

재외동포재단, 칠레 코리아타운 정비 및 한-포르투갈 50년사 발간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남미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정비하고, 포르투갈 한인 이민 50년을 맞아 '50년사' 발간을 지원한다.

또 미국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시에 한미 우호 상징이 될 '한우리공원' 조성 사업도 돕는다.

3월 2일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칠레한인회(회장 정성기)가 추진하는 '코리아타운 환경개선 사업'에 5만 달러(약 6천만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파트로나토 지역 내 도로 5km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2019년 10월 칠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 당시 코리아타운에 대한 약탈과 방화가 빈번했으나, 이 사업을 통해 코리아타운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페더럴웨이시 '한우리공원' 착공식 장면(페더럴웨이 한인회 제공)

올해는 한국인이 포르투갈에 정착한 지 50년 되는 해로, 현지 한인회(회장 정현주)는 '한인 이민 50년사' 발간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한다.

50년사에는 포르투갈에 정착한 이민 1세대들의 활동 기록과 정착에 도움을 준 현지 인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 이민 초기부터 정착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역사 등이 담긴다. 이에 동포재단은 1만5천 달러(약 1

천800만원)를 지원해 격려할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시에는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한우리공원'이 조성된다.

재단은 이 공원 건립을 주도하는 페더럴웨이 한인회(회장 김영민)에 3만 달러(약 3천6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은 올해 이들 사업을 포함해 동포 단체에 837건, 303만4천 500달러(약 37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미 델러스 · 오렌지카운티로 압축

재외동포재단은 내년 제21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후보지로 미국 델러스와 오렌지카운티 두 곳으로 압축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한상대회가 해외에서 열리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황병구) 산하 뉴욕, 델러스, 애틀랜타, 오렌지카운티 총 4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유치를 신청했고, 재단은 올해 2월 현지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이날 1차 내부 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후보지 중 결선 후보지로 델러스와 오렌지카운티를 선정했다.




2021년 제19차 세계한상대회 홍보 포스터

평가위원회는 세계한상대회의 첫 해외 개최인 만큼 해당 도시의 컨벤션센터, 호텔 등 시설 인프라, 동포사회와 현지 주류사회의 협력 가능성, 신청단체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종 결과는 4월 6~7일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과 연계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광일 재단 사업이사는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보여준 미주 동포사회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하다"며 "해외 개최가 동포사회와 모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단은 2002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몽우리들의 바다-국외독립운동 이야기

인도 · 멕시코 · 쿠바 · 미국 편 / 김동우 / 수오서재

'몽우리들'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큰 돌을 뜻하는 우리말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오며, 독립운동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본 순사는 지주가 전담의 몽우리돌을 골라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구 선생을 협박했다. 선생은 그러나 죽어도 몽우리돌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몽우리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한다. 일제가 남김없이 골라내려고 했던 몽우리돌은 중국 상하이와 만주,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몽우리들의 바다>는 전 세계 각지로 나가 싸웠던 독립운동의 흔적을 발굴해 기록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도서다. 작가는 세계 일주를 하던 중 인도에서 우연히 한국광복군 훈련지를 발견한다. 인도에서 시작된 우연이 멕시코, 쿠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으로 연결된다. 책은 그중 바다를 건너 인도, 멕시코, 쿠바, 미국으로 간 한인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제시이야기

박건웅 / 우리나비

이 책은 '한국판 안네의 일기'라 할 수 있다. 주인공 제시의 성장 과정과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 육아 기록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들의 생활상과 독립운동가들의 따뜻한 인간애, 해방의 감격을 잘 녹여내고 있다. 특히 임시정부 기록 대부분이 소실되었던 것에 반해,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공습을 피해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실상을 시기별로 정확히 소개한 이 일기는 당시의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임시정부의 행로와 중국에서의 생활, 독립에 대한 희망 등을 담은 소소한 일상의 기록을 통해 생사가 오가는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열정을 어떻게 꽃피울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두려움 속에서도 어린 핏덩이와 함께 잃은 조국을 새로 만들고 독립을 위해 가시밭길을 갔던 그들의 이야기가 책에 고스란히 담겨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한다.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50주년 맞아 동포 위문공연

러시아 사할린·중국 동북 3성, 일본 등의 동포를 청취자로 하는 KBS라디오 한민족 방송(AM 972Khz)의 대표 프로그램인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개설 50주년을 축하해 동포 위문 공연을 펼쳤다.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사할린·중국동포 위문 공개방송(KBS 제공)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3월 21일 저녁 KBS 아트홀 공개방송으로 열린 이 공연은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재한 중국동포, 청취자 등 200여 명이 직접 관람했다.

가수 설운도, 김국환, 나태주, 설하운과 소리꾼 박애리, 남상일 등이 출연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는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징용됐다가 일본 패망 후 귀국길이 막혀 잔류한 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와 1972년 4월 3일 생긴 프로그램이다.

공개방송에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추진 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고 박노학 씨의 아들로 동포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박청규 씨가 출연해 당시에 대해 증언했다.

박 씨는 "그때는 한국과 소련이 미수교 상태라 사할린 동포들은 한국으로 직접 편지를 보낼 수 없어서 일본을 거쳐 보내왔다"며 "KBS 한민족방송에서 가족 찾는 사연을 소개했고, 그걸 사할린에서 들으려고 다들 몰래 숨어서 들었다"고 전했다.

세종학당재단, 수교 30주년 기념해 베트남서 한국어 교육 워크숍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이 재단 출범 10주년과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베트남 내 한국어 수요 대응을 위한 한국어 전문 교원의 현지화 및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호찌민시 소재 거점 세종학당에서 3월 29~30일 이틀간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행사로, 세종학당 관계자와 한글학교 교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변화된 한국어 학습 수요와 교원 공급 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첫날에는 현지 교원 양성 과정 수료자 5명에 대한 수료증 전달식과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 전문 교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우수 사례 발표와 올해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행사 기간 한국 영화 '써니'의 베트남판인 '고고시스터즈'를 연출한 응우옌 꽁 중 감독이 한국문화의 매력을 소개하는 특강을 했다.




3월 29일 베트남 호찌민시 베트남 거점세종학당에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과 세종학당재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2022 베트남 세종학당 워크숍'이 열렸다. 베트남 21개 지역에서 모인 세종학당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2021 지구촌 한류 현황' 보고서 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3월 3일 '2021 지구촌 한류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드라마, 예능 등 전방위적 인기로 지구촌 한류 팬이 최근 10년 새 17배나 늘어나 무려 1억5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이 재외공관 150여 곳과 협력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한류 팬은 116개국 1억5천 6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2년(926만 명)보다 무려 17배나 불어난 수치다. 집계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했던 전년(2020년)보다는 29% 급증했다.

이는 각국의 한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동호회 회원, 소셜미디어(SNS) 가입 회원, K팝 앨범 판매 사이트 가입자 등을 바탕으로 산출했다.

음악,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관광, 음식, 한국어, 미용, 문학, e스포츠, 전통문화, 웹툰, 태권도 등 주요 한류 키워드를 토대로 활동 회원 수를 집계한 뒤 이를 더한 것이다. 



152개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2021 지구촌 한류현황'을 발간하였다.(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2022년도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 2분기 운영 안내



재단은 우수한 한글학교 교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 세계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2022년도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 2분기'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은 한글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글학교 교사의 기초 소양인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아동교육, 한국문화와 역사,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표준 지식과 이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한글학교 교사들이 스테디코리안 사이트의 재외동포 교육용 자료들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활동적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합니다. 학습자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 수업 능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 강의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언어 발달', '정서 발달' 등 다양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 수강대상

- 정규과정: 현 한글학교 소속 교사
- 활용과정: 스테디코리안 회원

■ 수강비용: 무료

■ 운영기간: 2022년 4월 1일~2022년 6월 30일(한국시간 기준)

■ 개설과정: 정규과정(단축과정 포함) 1~2단계, 활용과정 1~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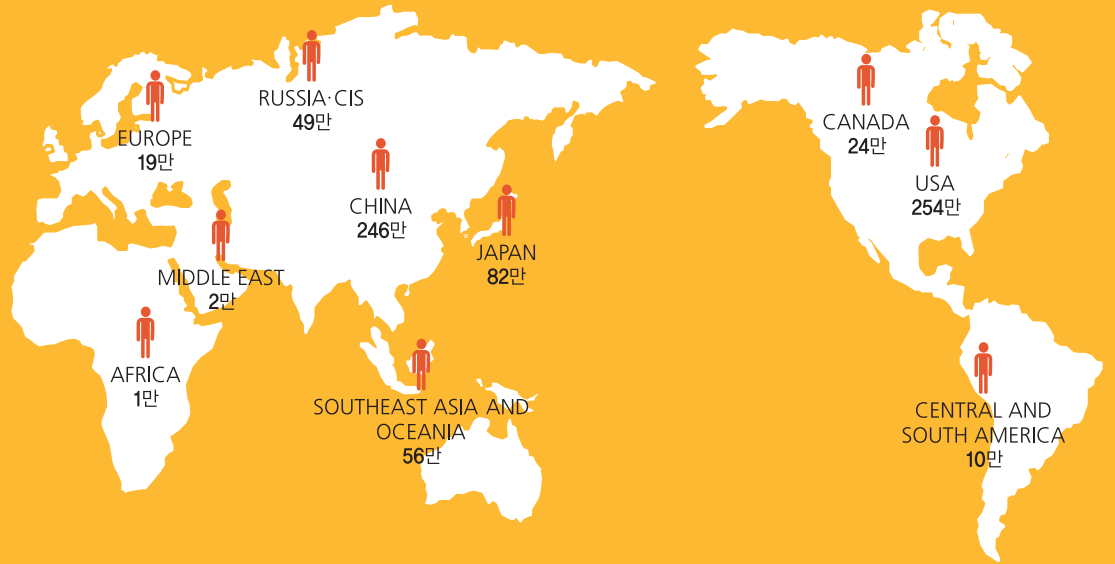
■ 수강안내: 스테디코리안(<http://study.korean.net>) 교사인증과정 로그인 후 이용

2022년 3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3월 15일: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참석(미주지역)
- 3월 26일: OKF봉사단 발대식

- 3월 30일: 재외동포정책포럼 축사
- 3월 31일: 일본 오사카 민주평통 강연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